

## 건협 제주지부, 신축청사 기공식 가져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는 지난 1월18일, 신축청사 기공식을 제주시 연동 신축부지에서 가졌다.

지난 85년 제주도청의 지원을 받아 연동에 150여평의 대지를 이미 마련해 놓았던 제주지부는 이번에 신축기공식을 갖게 되면서 숙원사업이던 자체건물을 곧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최진학회장, 제주도지부 박찬무지부장(제주도 부지사), 전무근 건협 사무총장을 비롯해 제주도청 관계자 및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해 신축기공을 축하해 주었다.

신축되는 건물은 대지 150여평에 연건평 300여평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며, 건물이 완공되면 각종 최신 의료 시설을 갖춘 도민건강진단센터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보건

연건평 300여평에 4층 건물

교육장으로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최진학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20여년간 기생충 퇴치 사업과 각종 성인병 퇴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제주지부가 자체 건물을 갖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이제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검사와 봉사으로써 도민 건강관리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또, 박찬무 제주지부장은 『이제 건협 제주지부는 명실상부한 도민 건강관리센터로서 예방검진 전문 기관의 역할은 물론 건강교육의 현장으로도 활용될 것』이라며 『최대의 친절과 봉사로 도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92. 농협검진사업 시작

'92년도 시·도 지회 농협공제 계약자 검진사업이 3월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다.

건강관리협회 각 시·도지부에서는 지부별로 발대식을 갖고 차량에 현수막을 설치, 단위 농협별로 순회 검진도 하게된다.

한편, 건협직원들은 을 '92년도 사업에도 더욱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

## 올해 건강관리 공개강좌, 3월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는 '92년도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3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월별강좌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지부 건강관리 공개강좌는 지난 '89년에 시작되어 그동안 각종 성인병 및 건강관리에 대한 강좌를 실시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왔다.

매월 2째, 4째주 목요일 오후2시부터 지부 홍보관이나 구민회관에서 실시될 예정인 공개강좌는, 각 질환별 전문가의 강의를 맡게 되며, 참석자들의 질문과 상담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협 서울지부(전화 601-7161~5, 486-0405~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의 월별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월-위암의 발견과 증상 및 예방·치료(3.12) 성인병의 원인, 증상 및 예방(3.26)

건협 서울지부, 2째·4째 목요일 오후2시

- 4월-간경화 및 간암의 증상, 예방, 및 치료(4.9) 고혈압 및 합병증의 예방·관리(4.23)
- 5월-당뇨병과 합병증의 예방·관리(5.7) 성인병과 신경성스트레스의 관계 및 예방·관리(5.21)
- 6월-위장질환의 예방과 치료(6.11) 갑상선질환의 원인 및 예방·치료(6.25)
- 7월-신장의 구조, 기능과 신장질환의 증상 및 예방·관리(7.9) 자궁암의 원인, 증상 및 예방·치료(7.23)
- 8월-성인병과 스트레스의 관계 및 예방·관리(8.6) 소·대장 질환 관리(8.20)
- 9월-류마티스 질환의 예방·관리(9.3) 알레르기 질환 관리(9.24)
- 10월-유방암의 원인,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10.8) 췌장질환 예방관리(10.22)
- 11월-고혈압, 저혈압 관리(11.12) 성인병과 식사요법(11.26)
- 12월-뇌졸중의 증상 및 예방·관리(12.10) 심장질환의 치료 및 관리(12.17)

## 가족단위 건강관리 등록제

대전·충남지부, 내원자 중 부부 중심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가 지부 부속의원을 찾은 내원자를 중심으로 가족단위 건강관리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충남지부 강군옥 원장이 주축이 되어 실시하게 된 이 등록제는 지부 부속의원을 찾은 내원자중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사항을 파악하여 기초기록부를 작성하고 임상검사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단위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검사를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가족의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가족건강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가정의학이나 평생건강관리제 정착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협 대전·충남지부는 1차로 '89년 10월1일부터 '91년 9월30일까지 본회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부부의 가족등록을 받고 총 160세대 320명에 대한 기초기록부를 작성하여 등록관리에 들어갔다.

## 남겨져 버리는 음식 연간 8조원

보사부, 좋은 식단 만들기 운동전개

보건사회부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식단 만들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좋은 식단의 모형을 제정, 지난 1월20일부터 시범적으로 보급·실시하고 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가 외식위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인데다가 가정이나 식당에서 남겨져 버리는 음식의 양이 연간 8조원에 이르고 있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과소비 문

제, 위생문제 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음식물 과소비 억제와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식단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의 개발·보급, 균형식과 조리법 권장, 고유 음식문화 발굴·전승 등 "국민 식생활 문화 개선 운동"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하자는데 이 운동의 목적이 있다.